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우리 승리제단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말하는 마음 법만 지키면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고 또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완전히 해결 하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죄라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나'만 의식하지 아니하면 죄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죄가 있다 되는 것은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 없다도 역시 나를 의식 하는 사람에게만 병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야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 불경계가 쓰여 있어요. 무야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무야경지에 이르러야 죄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의식이 죄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의식만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선에 올라가는 것이 도통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이 되는 비결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을 수가 없나면, 나라의 것이 없어지는 사람, 나라의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 없어요. 나라의 것이 있어야 죽을 것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을 22년간 듣지만, 그때그때 새로운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나라의 의식이 죄라는 것이 곧 원죄라는 것이 나라의 의식이라는 것이요 선악과가 나라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나라의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의식만 없으면 완전히 도통했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려니까 나라의 것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생각만 안 하면 없애져. 나라의 것을 의식만 안 하면 그것이 어디가 설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밑에서 도통했다 도통했다 하는데 뭘 도통한 줄 아세요?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그 선에 올라간 겁니다. 나라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나를 조금도 일점일획도 의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도통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되는 비결입니다.

종교 집단이란 무야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의도임이요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의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의식이 있는 그러한 집단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나라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나라의 의식이 없어야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의 의식이 없어야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이 모이는 집단이 이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종교 집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바로 무야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바로 나라의 의식이 없는 집단은 바로 하나님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 위 에 있어요? 없죠? 구세주 밖에는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도 없다. 종교도 없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본체가 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학문이 학문이지, 마귀의 학문은 그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이 마귀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종교가 없었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



구세주 조희성님

이 하는 말이 그냥 꾸며서 하는 것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학문의 근본을 가지고 이 사람은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밑에서 연단 받을 때에 이렇게 해봐도 이제 그대로 '젓다'로 떨어지고 저렇게 해봐도 젓다고 떨어지고 아무리 이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자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했다 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라의 것이 암만 기도를 하고 나라의 것이 암만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떨어지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바로 원수의 입장에서 있는 바로 마귀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승리제단은 의인을 키우는 장소요 하나님 만드는 곳

그래서 해와 이긴자의 큰아들이 주먹 따귀를 때렸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러한 이 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나라의 것이 이제 맞았다고 의식을 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의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로 그런고로 자가 때려봐야 나라 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겁니다. 이긴자가 뭐 괜히 오래오래 참아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를 이긴 겁니다. 마귀인 나라의 의식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림없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도(道)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문도 없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제 마귀가 알고 있는 학문은 그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고 마귀의 학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 학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을 때에는 '참으로 말도 기가 막히게 번사(辯士) 이상으로 갈 정도로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무슨 말을 갖다가 변증법에 의해서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진리 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 수록 '틀림없는 구세주'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틀림없는 구세주인 줄을 몰랐는데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니까 '이건 구세주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승리제단이라는 데는 바로 의인을 키우는 장소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들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의 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나를 의식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항상 마귀한테 젓다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다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겼고 하나님은 젓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나님 이겼다가 되고 바로 죄인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과는 상관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 때 비로소 구세주의 말이 진리의 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기독교 어느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다." 그런 겁니다. 아무런 근거 있는 학문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서 학문이 없다. 그대로 종교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구세주는 그러한 조리 있는 학문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학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 없다. 종교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기가 막혀? 기가 안 막혀?

사실 여러분들 이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사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병도 안 걸려. 내 몸이 조금 허약하다고 해서 병이 있진 않냐고 의심하고 진찰을 해보면 없는 병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이 없다! 내 나 속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나라의 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라의 의식이 마귀이고 마귀가 있을 때에 몸에 병이 드는 거지, 나라의 것이 없어지면 몸에 병이 안 듭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나라의 것이 있어야 늙는 거지 나라의 것이 나이를 자꾸 쳐 먹으니까 자꾸 주름살도 생기고 늙는 겁니다. 나라의 것이 없으면 주름살도 안 생겨. 그냥 늘 젊어져. 해봐 여러분들, 2003년 되었으니까 2003년부터 나이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점점 젊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예쁜 색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집간다고 그럴까 봐 나는 걱정이 되요. 젊어지면 시집간다고 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절대로 시집가면 죽습니다. 결혼하면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나라의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5백 살 먹어도 나이가 5백 살인지 15살인지 모를 정도로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영모님이 그때가 되면 17살이 된다고 그랬죠? 17살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영모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모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일곱 살로 변합니다. 남자들은 욕심 넘은 사람들 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야.' 하지만 열일곱 살로 변해, 몸이 열일곱 살로 변하면 몸이 둔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들 때 비로소 구세주의 말이 진리의 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릎을 절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2003.1.3. 주님 말씀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장 여호수아》

1절: 가나안 침입



▲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 성벽이 외르르 무너지다 (여호수아 6:20).

(4) 무너진 여리고 성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두 났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겁내어 성문을 굳게 닫고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군대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 성을 여섯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다.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아침 일찍부터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행진하게 될 것이요 다만 7일째 날에는 저 성을 일곱 바퀴씩 돌 것이요 무장한 정예부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수양의 빨나팔 일곱을 든 일곱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제사장이 따르고 그리고 언약 뒤에 후위부대가 따르시오. 행진 때에는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오. 하나님께서 '외쳐라!' 하고 명령하시는 날에 크게 고함을 지를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시오. 그러나 일곱 제사장은 1일째부터 7일째까지 행진할 때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하오"

이스라엘 군사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매일같이 언약을 맺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오기를 6일 동안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일곱 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아직 나팔을 불고 있는 사이

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리고 성과 성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고 있다. 단지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려 두어라. 라합은 우리들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인가."

여호수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하고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여리고의 성벽이 외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의 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채, 그 집의 창문에는 붉은 홍겉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이 있는 북쪽 성벽을 보

호하시어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5) 살아난 라합

여호수아는 여기 정탐하러 왔었던 두 사람을 불러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의 거리마다 불을 놓아 모두 불태워버리고, 금, 은, 청동 그리고 쇠붙이 그릇만을 여호와와 집 창고에 거두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은 모두 살아남고 그들의 재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평온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안젤라



▲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 윌리엄스 슈노르 폰 카를스펠트 1846작.